

비수기 맞은 한약상가 시세도 한풀 꺾여 시호 산수유는 품귀여전, 올 생산량 다소 늘듯

지난 5,6월부터 햇것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한 인진, 익모초, 구절초등 풀잎약재들이 전반적인 내림세 경향을 띄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부터 줄곧 상승곡선을 그려가던 국산 한약재 시세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다소 주춤한 상태다.

대표적인 폭등세 품목인 황기, 당귀, 일천궁등은 평균 5백원 폭으로 내림세. 햇것 출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맥문동 시세도 예년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한풀 꺾였다.

'승승장구' 하던 국산약재 시세를 이처럼 한풀 꺾이게 만든 건 식품으로 반입돼와 시장에서 대량으로 물밀겨래된 수입약재 때문. 얼마 전 국산과 거의 비슷한 수입천궁이 1백여t 가까이 반입됐다는 풍문에 이어 최근엔 당귀, 작약, 독활, 황기, 방풍 등이 식품으로 들어와 작업중이라는 입소문이다. 7,8월 비수기를 맞은 한약 시장 경기가 유난히 맥을 못추고 있는 것도 시세주춤의 한 원인이다.

시호, 산수유, 오미자등 품귀현상을 빚고있는 일부 품목은 부르는게 값일만큼 여전히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오는 8월 안으로 반입될

예정인 쿼터폼(시호 60t, 산수유 40t)이 시중에 풀어지면 이들 품목의 품귀현상도 다소 진정될듯.

물량부족으로 올해 유난히 폭등세를 보인 시호, 산수유, 황금등 일부 품목의 경우 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8월 비수기를 지나 햇것이 출하될 시기쯤엔 거품이 빠지고 약재시세도 얼마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약 6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식산약(재배산)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8천원 선으로 지난 5월 7천5백원 시세보다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물동량은 그리 활발치 못한편. 생산약(자연산)은 근당 1만1천원 선으로 보합세다.

금은화 민간에서 인동덩굴이라고도 불리는 금은화는 잎, 꽃, 줄기를 이노, 해독, 종기, 부종, 감기, 지혈 등에 약재로 쓴다. 재배되기 보다는 전량을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물량이 많지 않다. 시세도 상보합세. 6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3천원 선이다.



햇것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시기임에도 올 물량은 거의 바닥수준. 다소 오름세가 예상된다.

황기 3년근과 5년근 이상의 대황기는 근당(6백g 기준) 1만8천원(3년근) 3만2천원(5년근) 선으로 지난 5월과 시세변동이 거의 없다. 그러나 1년근 소황기는 근당 1만원선에 거래되던 5월보다 다소 하락, 6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8천5백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여름철 식은땀 흘리는데 보약재로 많이 쓰이는 황기는 다른 약재와 달리 비수기와 무관하게, 소비량이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물동량은 기대치에 못미치는 수

준. 소비부진이 이어지자 그간의 거품성 폭등세가 다소 빠지면서 시세도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산 폭등세를 틈타 식품으로 대량 반입돼온 수입산이 시장에서 물밀겨래된 것도 황기 시세를 주춤케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호 산지에서 근당(6백g 기준) 2만5천원에도 물량구하기가 어려울 만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경동약령시장에서 이따금씩 거래되는 시세는 근당 2만6,7천원 선. 품귀현상으로 물동량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부르는게 값일만큼 시세 형성도 여의치 않다. 최근 수급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산 시호 60t이 조만간 반입될 예정이어서 시호가뭉현상은 다소 해갈될 듯.

당귀 6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토당귀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통자로 5천원, 절단한 것은 5천7백원 선으로 5월 시세보다 다소 빠진 듯. 올 상반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당귀 가격이 이처럼 주춤한 것은 7,8월 한약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소비물량이 현격히 감소한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당귀시세를 올려보려는 시도가 모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생각만큼 여의치 않다는 후문이다. 9,10월 어느정도 한약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전까지 당귀시세는 당분간 보합세 이룰 전망이다.

작약 소폭이긴 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6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절작약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의성산이 5천원선, 호남산이 4천원선으로 지난 5월 시세보다 5백원 폭으로 올랐다. 올 수확예상량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속에서 국산작약 시세는 앞으로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맥문동 6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2천5백원(거심), 1만원(막막)선으로 다소 내림세. 지난 5월 이후 햇것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맥문동 시세도 한풀 꺾였다. 생산량은 그런대로 평년작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동시출하로 인한 시세 폭락을 우려한 때문인지 생산농가에서 출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상인들의 귀뜸이다.

천마 국산재배 천마시세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5월 근당(6백g 기준) 1만8천원선에 거래되던 천마가 6월말 현재 근당 2만~2만2천원선까지 도매거래되고 있다. 수입(중국산) 천마도 근당 1만4천원 선으로 상한가. 다른 작물에 비해 단위 수확량이 많지 않고 실패율이 높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기자 물량이 귀하다. 6월30일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7천원선으로 상보합세. 근당 1만7천원선이던 지난 5월보다 5백원 폭으로 더 올랐다. 청양 산지에서도 1만7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며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독활 꾸준한 오름세. 5월30일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독활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5천2,4백원 선으로 근당 4천8백원 선이던 지난 5월보다 5백원 폭으로 상승. 이같은 독활값 상승세를 틈타 최근엔 약삭빠른 장사군에 의해 수입독활이 식품으로 반입돼와 작업중이라는 입소문이 떠돌면서 시세형성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정희>

인삼-오미자등 달인 '생맥산' 더위타는 사람에게 좋아

날씨가 더우면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또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르며 식후에는 맥을 못출 정도로 피곤하고 졸립기만 하다. 이럴때 '여름을 탄다'고 한다.

여름을 탈때는 무엇보다 '생맥산'이 효과가 있다. 생맥산은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각20g씩 물 2l에 넣고 약한 불로 2시간 정도 달여 만든 음료. 냉장고에 넣어두고 물대신 마시면 여름철 청량음료로 이보다 좋은 것도 없다.

인삼은 달여 마신다. 기



력을 증진시켜 더위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인삼에 함유된 파낙소나이드의 강력한 작용때문.

맥문동은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좋다. 신경과민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목이 말라 음식을 삼키기가 불편한 사람도 맥문동을 달여 마시면 편안해진다. 주부가 일시적 충격으로 가슴이 뛰고 열이 나면서 식욕이 없고 소변이 편치 않을때도 효과적.

오미자는 시고 짭고 달고 짜고 약간 매운 다섯가지 맛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여름에 흠어지기 쉬운 기를 모아주는 수렴작용이 있다.

세가지는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합하다. 또 '생맥산'으로 한데 달여 마셔도 좋고 따로 먹어도 된다.